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일본의 경제 회복 정국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과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은 바 있는 대표적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권 일부에서도 대화 상대로 이 총리를 주목하기도 한다.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협상 파트너로 이 총리가 적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얼마 전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톱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 총리의 '역할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우선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경제장용 피해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서 양국 접점을 찾기 위해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의 역할론

일본어에 능통한 이 총리는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관가 또는 정계-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점을 찾지 않고서는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를 굳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역할론'이 '대망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 해결한다면

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철살인의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진압, 친문 핵심 진영의 지지를 넓혀 가는가 하면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의 안정적 대응으로 중도 및 보수 진영에서도 호평을 받는 등 확장성을 키워 가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이슈는 감정적인 부분이 크고 그만큼 폭발성이 강한 만큼 이 총리가 한·일 갈등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민심의 폭발적 지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가 내년 총선 때까지 내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총리 교체에 나설 경우, 국회 동의를 둘러싸고 정쟁만 일으켜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 내년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여의도 정치에 합류한다면, 차기 대선 경쟁이 조기 점화돼 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총리의 안정적 내각 운영 능력을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년 2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이 총리가 내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이어 간다면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아직까지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김홍식 전 총리가 2년 5개월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 총리는정치적 운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강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혼치 않는 상황도 겹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국 흐름이 이 총리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총선이

후 이 총리의 대망론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망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친문 진영의 견제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각설은 '친문 후보론'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참여에 선을 긋자 친문 핵심에서 '조국 대망론'을 부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그리 녹록잖아

여기에 '호남'이라는 지역적 프레임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과제다. 일단 '영남 대 호남' 구도를 오히려 과거 프레임에 가두는 시대적 이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광에 힘입은 '2인자'라는 이미지도 약점이다. 그가 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빼어난 지점이다. 그동안 대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한 국무총리들의 잔혹사를 감안한다면 이 총리가 마주할 현실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총리가 한일 갈등 국면 타개로 대선의 길을 여는 것은 물론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루지 못했던 호남의 여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지난 28일 마지막 경기인 여자 400m 혼계영에서 미국팀의 새로운 세계 신기록으로 그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194개국 2563명의 선수가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 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등 여섯 개 종목에 출전해 이 더운 여름 한복판에서 광주를 더 뜨겁게 달궜다. 북한의 불참이 아쉽지만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였다.

광주의 유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 워터 수영이, 2013년에 하이다이빙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광주 대회는 2013년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집행위원회의에서 광주가 18번째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되어 그 준비를 시작하였다. 국제수영연맹이 제출한 공문서에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대필하는 사건으로 조직위원회의 공신력이 국가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광주시민의 자원봉사와 참여로 대회는 큰 무리 없이 잘 치러졌다. 대회 막판에 선수촌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선수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파의 코뼈 부상 등이 있었다. 결선 진출이라는 목표로 출전한 아티스틱 수영은 팀 프리 콤비네이션 종목에서 결선에 올랐다. 눈을 뜨고 하는 장시간의 잠영으로 눈과 귀에 만성적인 부상이 있었고 기계 체조 같은 수영 동작으로 물과의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이 선수들을 괴롭혔다. 다이빙에서는 김수지 선수가 1m 스프링보드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우하람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오픈 워터 경기는 준비되지 않은 수영 모자로 옷치 못할 촌극이 있었지만, 최초로 탐을 구성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하였다. 경영에서는 5개의 한국 신기록을 만들어 냈다.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우리에게 수영을 알게 해준 이후 이번 대회는 월드컵 축구 만큼이나 짜릿한 수구,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기고



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야구 경기에 '위기 뒤에는 찬스'라는 해설자의 말이 자주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 말을 자주 떠올렸다. 야구 경기에서 말하는 '위기 뒤에 찬스'는 수비할 때 위기를 잘 넘기면 다음 공격 때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위기 뒤에는 찬스

이곳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다시 한 번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실무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은 의견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 문제 등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복잡다난한 외교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벌어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社說

늦었지만 의미 있는 '수출 규제 대응 협의회'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조당적 대응 기구인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간경협의회'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 보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때, 이 소식이 더욱 반가운 것은 그동안 정쟁만 계속해 오던 여야 5당이 모두 협의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민간정 협의회는 일본의 경제 회복과 관련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조당적 비상 협력기구인 셈이다.

일본정 협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고 각 당 대표들이 호응함으로써 공동발표문에 담겼던 내용이다. 우선 국회에서 합의한 기구라는 점에서 앞으로 범국가적 합의와 대응을 다루어 나갈 '민관정 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하겠다. 물론 협의회에서 당장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간정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대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를 넘어 거국적·초당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해 나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론을 통일시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힘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고도 방치 원전 부실시공 책임 소재 가려야

최근 영광 한빛원전 격납 건물에서 200개의 크고 작은 공극(구멍이나 빈틈)이 발견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때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원전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측에 부실시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한다. 1994년 국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거론됐지만 원전 측은 '이상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無等鼓

한국의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3352개의 유·무인도가 있는데 이중 65%인 2165개가 다도해로 불리는 전남에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섬으로만 이뤄진 곳은 신안·완도·진도 등 세 곳이다. 국내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일찌감치 '천사 섬'이란 브랜드를 선점했다. 하지만 실제 섬 개수(個數)는 857개다.

핀, 마카오, 북경을 거쳤는데 그가 경험한 각 나라의 풍습과 문화가 '해륙록'이란 책에 실려 세상에 알려졌다. 표해록은 마침 우이도에 유배 온 정약전이 대필한 것이다.

전남의 보물, 섬

전남의 섬에는 스토리도 풍부하다. 보성 장도는 꼬끼리 유배지로 유명하다. 조선 태종은 일본 국왕이 보낸 꼬끼리 가항양에서 사람을 빼아 죽이고 하루에 4~5말의 콩을 먹여 치우자 재판을 열어 장도로 유배를 보냈다. 먹을 것이 없는 장도는 꼬끼리에게 기혹한 유배지였다. 나날이 수척해진 꼬끼리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장계를 올린 후에야 꼬끼리는 옥지사로 나올 수 있었다.

은 것을 개항 후 되찾았고, 1910년 한일 병탄으로 다시 일본인 땅이 됐다가 3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